

머리글

진정한 기독교 대학을 꿈꾸며

금번 「통합연구」지는 ‘현대 사회와 기독교 대학’이라는 특별 주제를 다루었다. 국내외에 많은 대학이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되었으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상당수가 인본주의적 학문이 지배하는 세속적 무신론적 대학으로 바뀌었다. 이는 기독교 대학이라고 불리던 대학들이 학문성과 기독교성을 동시에 유지 발전시키거나 조화를 이루는데 엄청난 난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 지식과 학문의 영향은 대단하다. 그런데 인간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다는 세속적 인본주의로 학문의 세계가 반기독교적인 정신으로 가득차게 되었다. 특히 현대에 들어서 모든 학문 영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자연과학이 사실 추구에만 집착하는 동안 반기독교적 정신이 과학적 지식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세상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변혁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곳이 대학이라는데는 이론(異論)이 없다. 왜냐하면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통해 그 시대의 시대정신을 형성할 수 있는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명을 담당할 수 있는 기독교 대학에서 마땅히 연구되어야 하고 가르쳐야 할 기독교 학문이 형성되지 못하고, 기독교적 학문 수행을 통해 기독교 대학을 이끌어갈 학자가 없다면 그런 기독교 대학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 대학의 존재를 위해 다음 몇 가지 과제들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기독교 대학은 일반 대학과 같은 학문공동체이면서도 동시에 신앙공동체를 유지해야 한다. 기독교 대학에서의 교육은 신앙공동체적 패러다임을 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대학이 기독교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켜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들이 연구되어야 한다.

둘째, 기독교 대학에서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 못지 않게 기독교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데 주저 말아야 한다. 가치 부재의 교육과 기술 지향적인 학문이 애써 쌓아올린 것들을 도리어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가치 부여 교육을 가능케 할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셋째, 기독교 대학은 반기독교적인 세속 학문을 학문적으로 변증할 수 있는 대학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신앙적 감상주의로, 현실성을 상실하면 대학의 기능은 약화된다. 말씀, 교제, 봉사의 교회의 기능이 포함된 기독교 대학의 구조 내에서 학문의 수월성을 세울 수 있는 방법들이 연구되어야 한다.

넷째, 기독교 대학은 그 속한 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 사회의 근본적 구성 요소와 가치, 목적과 이상 등에 대해 바로 이해하며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기독교 대학이 현실의 도피처가 아님을 인식할 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기독교 대학의 존재 가치를 인식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를 이 사회에 줄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

그 외에도 여러 연구 과제들이 자신이 있는 위치에 따라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많은 연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번 「통합연구」에 실린 글들은 이러한 노력들의 반영이며 이같은 수고들을 통해 진정한 기독교 대학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확신한다.

원 동 연

통합연구학회 담당